

국제금융시장 1월 동향 및 2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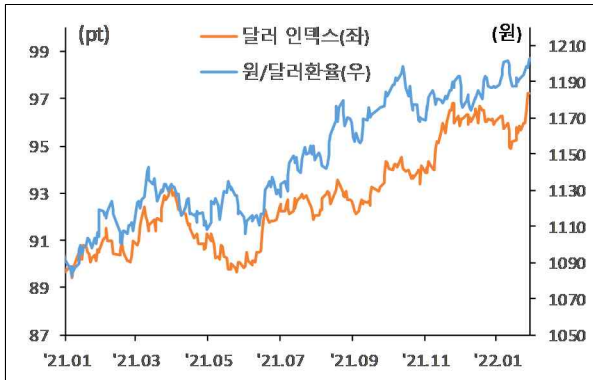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천 경 원 (cheonkw@kdb.co.kr)
 장 명 화 (clarajang@kdb.co.kr)

- ◆ **(환율)** 1월 원/달러 환율은 매파적인 FOMC의 영향으로 급등, 2월에는 외환당국의 안정화 노력 등으로 보합세 예상
- ◆ **(금리)** 1월말 주요국 장기금리는 중앙은행들의 긴축 우려 속에 기준금리 상승 가시화로 전월말 대비 상승, 2월에는 상방 우위 보합세 전망
- ◆ **(주가)** 1월 주요국 증시는 금리 상승과 유동성 위축 우려로 하락세 지속하다 월말 반등 시현하며 극심한 변동성 장세 연출, 2월 주요국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기대 등이 투자심리를 뒷받침할 전망으로 전월대비 변동폭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

□ **(환율) 1월 원/달러 환율은 매파적인 FOMC의 영향으로 '20.6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 2월 환율은 외환당국의 안정화 노력 등으로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글로벌 동향) 연준의 통화긴축 정책에 대한 경계감으로 달러인덱스*가 1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1.27일 97.251)을 기록하는 등 달러화 강세 시현, 주요국 중앙은행은 금리인상 등 긴축행보를 계속
 - * 메이저 6개 통화(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나) 대비 달러화 가치
 - 1월초 공개된 12월 FOMC 회의록에 대차대조표(B/S) 축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등 예상보다 강도 높은 긴축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로 시장내 경계감이 지속
 - 1월 FOMC(25~26일) 이후 연준의장의 기자회견이 매파적으로 해석*되며 1년 6개월만에 달러인덱스가 최고치를 기록
 - * 연준의장은 현재의 경제상황은 기존 금리인상기(2015년)와 달리 고용시장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금리를 인상할 여력이 있으며 B/S 축소는 종전보다 더 일찍 더 빠른 속도로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
 -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유가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행보가 계속*
 - * 영국의 경우 12월 금리인상에 이어 2월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 캐나다는 3월 금리인상이 유력하며 ECB의 라가르드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다음 통화정책회의시 물가전망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임을 예고, 기존의 완화적 입장에 변화
- (국내 동향) 위험회피심리 확산,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환율이 상승
 - 원/달러 환율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1.14일) 등으로 1월 중순 일시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나 매파적인 FOMC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확산, 외국인 주식 순매수세의 순매도세로 전환 등으로 1월말 '20년 6월 이후 최고치(1.28일 1,205.5원)를 기록
 - 전년동월 대비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유 등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점도 환율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

달러 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 연합인포맥스

수출입 실적 추이

구분	21년				22년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수출	480	557	604	607	553
수입	444	538	574	612	602
무역수지	36	19	30	△5	△49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전망) 원/달러 환율은 연준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반영되며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으나 외환당국의 안정화 노력에 따라 추가 상승은 억제될 것으로 예상
- * 파월은 1월 FOMC 이후 기자회견에서 향후 모든 FOMC에서 금리인상을 고려할 가능성과 금리 인상폭이 50bp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 시장내에서 금리인상 속도 및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높은 수준의 환율이 지속
- 원/달러 환율은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 불확실성에 대한 선반영 등으로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기재부는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가동할 것 임을 예고(2.3일), 이러한 조치가 환율시장에 반영되며 안정화 예상
- 다만,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긴장감, 통화긴축에 따른 경기회복 둔화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어 원/달러 환율의 횡보세를 예상

환율 추이

	'19년말	'20년말	'21.12월말	'22.1월말	전월대비
원/달러	1,156.4	1,086.3	1,188.8	1,205.5	+1.41%
달러 인덱스	96.479	89.927	95.649	96.625	+1.02%
달러/유로	1.1219	1.2217	1.1376	1.1236	△1.23%
엔/달러	108.66	103.26	115.10	115.08	△0.02%

자료 : 연합인포맥스

□ (금리) 1월말 주요국 장기금리는 중앙은행들의 긴축 우려 속에 기준금리 상승이 가시화되며 전월말 대비 상승, 2월에는 상방 우위 보합세 전망

- (동향) 1월 주요국 국채시장은 인플레이션 부담과 통화정책의 긴축 우려를 민감히 반영하며 약세(금리 상승) 시현
 -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연준의 긴축 가속화 우려로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1.8% 레벨을 돌파하여 1.87%(1.18일)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1.25~26일 FOMC 이후 경계감 일부 완화와 월말 견조한 수급 영향으로 1.7%대에서 마감
 -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불안 고조 등에 따른 안전 자산 선호로 하락하기도 했으나, 인플레이션 우려와 ECB의 정책 스탠스에 촉각*을 세우며 약 3년 만에 플러스 금리를 기록하며 월말 마감
 - * ECB는 12월 의사록에서 '일시적 물가 상승' 논리와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를 재확인하였으나, 시장은 물가 상승 지속 등 감안시 ECB도 매파적인 스탠스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우려
 -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대체로 미 국채시장 움직임에 동조하였으며, '16.2월 이후 최고 금리인 0.178%를 기록하며 전월말 대비 상승 마감
- (전망) 주요국 국채 시장은 미국의 금리인상 단행 및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변동성이 지속될 전망으로, 2월에는 상방 우위 보합세 전망
 - 1월 FOMC 이후에도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횟수나 폭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향후 긴축 속도 및 경기 영향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계속될 전망
 - BOE(영란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 타 중앙은행들의 긴축행보 가시화 될 경우 시장의 긴축 경계감이 재차 강화될 가능성
 - 우크라이나 사태 등 불안요인이 안전자산 수요로 이어지는 등 수급상황은 견조할 전망으로 금리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주요국 국채금리 추이

	'19년말	'20년말	'21.12월말	'22.1월말	전월대비
미국채 10y	1.9175	0.9132	1.5101	1.7767	+26.66bp
독일채 10y	-0.1850	-0.5690	-0.1770	0.0110	+18.80bp
일본채 10y	-0.0110	0.0210	0.0710	0.1780	+10.70bp

자료 : Bloomberg

□ (주가) 1월 주요국 증시는 금리 상승과 유동성 축소 우려로 하락세 지속하다
월말 반등 시현, 2월에는 주요 기업의 양호한 실적 기대 등으로 투자심리는
전월대비 안정적인 전망

○ (동향) 1월 주요국의 주가지수는 1.5일 최고가 경신* 이후 통화긴축 전망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내림세를 지속하다 월말 크게 반등하였으나, 전월말
대비 하락 마감

* 다우지수 : 36,799.65(1.4일), Stoxx50 : 4,392.15(1.5일), Nikkei225 : 29,332.16(1.5일)

- 미 증시는 12월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에 따른 유동성
위축 우려로 주요 주가지수가 급락*하였으나, 1월 FOMC의 예상범위 테이퍼링
일정 확인에 따른 안도와 월말 기업실적 호조 등을 반영하며 강하게 반등하여
하락폭을 상당 부분 만회

* 다우지수: 7.2%▼ 36,799.65(1/4)→ 34160.78(1/27), 나스닥: 14.5%▼ 15,622.72(1/4)→ 13,352.78(1/27)

- 유로Stoxx50 지수는 우크라이나 사태 불안, 독일 4분기 GDP 역성장* 등으로
투자심리 위축이 월말까지 이어지며 하락 마감

* 연방통계청(Destatis)은 독일의 4분기 GDP가 코로나19 변이 확산 및 예방조치 강화 등에 의해
0.7%(qoq) 감소했다면서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다고 발표 (1.29일)

- Nikkei225 지수도 미 증시와 대체로 동조하며 큰 폭의 변동성 장세 시현

○ (전망) 2월 주요국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기대 등이 투자심리를
뒷받침할 전망으로 전월대비 변동폭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

- 1월말 강한 반등세로 인한 투자심리 호전 및 견조한 주요국의 경제 상황 등을
감안시 2월은 기업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흐름을 보일 전망이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의 금융시장 밸류에이션 하락이 재연될 가능성을
염두할 필요

· 코로나 변이 확산 영향 및 러시아-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갈등 추이에 따라 국제
유가 급등 및 위험자산 선호 위축 등으로 하방압력을 받을 가능성 상존

주요국 주가지수 추이

	'19년말	'20년말	'21.12월말	'22.1월말	전월대비
다우존스	28,538.44	30,606.48	36,338.30	35,131.86	△3.32%
유로 Stoxx 50	3,745.15	3,552.64	4,298.41	4,174.60	△2.88%
Nikkei 225	23,656.62	27,444.17	28,791.71	27,001.98	△6.22%

자료 : Bloomberg

(담당자 : 환율 - 천경원, 금리·주가 - 장명화)